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럼, 저에게 집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의 주제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제가 오늘 밤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좋은 파티를 확실히 망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알려드리고 합니다.  
제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여러분 각자의 파티를 망치는  
방법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누구에게나  
확실한 방법입니다.  
전세계 어디서나 통하는 방법입니다.  
준비 되셨나요?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파티에서,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파티장에 도착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분위기도 괜찮았습니다.  
음악이 흐르고, 음식도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의 친구들은  
거기에 다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아무도 바보같이  
춤을 추지도 않았고,  
아무도 귀청 떨어져라  
노래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환상적인 파티입니다.  
이 파티를 망치는 방법은,  
대화가 무르익을 때쯤에,  
조금 큰 목소리로,  
'할 말이 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말씀 드리려 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 같죠?  
여러분이 그러한 발언을  
파티에서 한다고 소문이 난다면,  
많은 파티에는 초대되지 못하겠죠?  
실상 파티에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것은  
너무나 당황스러울 것이라는 것을 저도 압니다.  
그렇지만, 파티에서 그런 이야기를  
나누지 못한다면

언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까요?

‘직장을 다녀와서 이야기 합시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오늘 너무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저 TV 보고 쉬고 싶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주말에는 어떨까요?

‘주말에는 말고요. 해야 할 일이 있거든요.’

주말에는 쉬고 싶습니다.

주말을 재미있게 보내고 싶습니다.

친구하고 저녁 먹으러

나가거나,

초대해서 맛있는 거 해먹거나,  
그런 이야기 할 시간은 아닌 것 같네요.’

그럼 장례식에는 어떨까요?

놀라실 것입니다.

저는 목사이기에, 자주 장례식을 집행합니다.  
그렇지만 장례식에 참석하신 분들의 눈을 보고,

하루만이라도

우리가 언젠가는 죽는다고

언젠가는 그 관에

자신이 들어가 있을 거라고 말씀 드리면,

그 분들은 ‘어이가 없군!’ 라는 생각을 하며

저를 바라보고 있음을 저는 압니다.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어떻게 나의 죽음에 대해  
이 같은 자리에...’라는 눈총이지요.

그렇다면, 언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가 왜,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을  
직면하기 싫어하는 이유는 많습니다.

우리는 유희를 추구합니다.

우리를 웃기고, 행복하게 하는 것을

매우 좋아하죠.

죽음은 우리를 웃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불안해 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죽음이 우리의 업적과 재산에

어떤 의미가 있는 지 알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관을 생각해 보세요.

많은 공간이 있지 않죠?

우리의 업적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재산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홀로 남습니다.

죽음은 우리의 좋은 시절, 노력, 존재를 위협합니다.

이 모든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죠.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기 싫은 다른 이유는

당장 직면한 문제로 생각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일어날 일이라고는 알고 있지만,

지금 당장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우리는 평생

죽음에 대한 심각한 대화를

어느 누구하고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쯤이면 눈치 채셨을 텐데요. 오늘 밤,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으면 합니다.

제가 우울하고 음침한

스코틀랜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제가 전혀 그런 타입이 아니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저는 우울하고

음침한 것은 질색입니다.

제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으면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책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위안이 되는

답변을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을 함께 봅시다.

11장을 찾아보시면,

오늘 정말 잘 왔구나! 생각이 드실 겁니다.

11장은 45절까지 있습니다.

기대가 되시죠? 아주 좋습니다.

1절부터 읽어봅시다.

여기서,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여기서 읽기를 멈추고

한가지 여쭙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읽어본 것을 보면,

다음에 뭐가 나올 것 같으세요?

예수님께서 이 가족을  
사랑하시고,

나사로라는 사람이  
아프다고 합니다.

그럼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올 것 같으세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친구가 병에 들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가장 빠른 낙타를 잡아타시고  
베다니로 가지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서는  
병을 낫게 하기 위해,

실제로 가실 필요는 없으시죠.  
요한복음 4장에서는

왕의 신하인 사람의 아들이  
병에 들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서는 말씀으로  
그 아들을 낫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렇지요?

가장 빠른 낙타로 그 곳에 가지든지  
그 자리에서 말씀으로 바로 고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셨는지 6절에서 읽어봅시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들을 더 유하시고.”

놀라시지 않으셨어요?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으시고도

예수님께서서는 거하신 곳에서  
이들을 더 머무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들으실 준비되셨어요? 놀라실 겁니다.

이들을 더 머무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살았었던 베다니에

도착하게 될 때는  
나사로는 이미 죽어

며칠이 지난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머무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생각하시기에,  
왜 이 사실이 충격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 그 시대와  
여러분과 저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기 위해  
일부러 머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기 직전에,  
베다니로 가서 구해줄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을 아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다시 나사로에게 가서서,  
죽은 나사로를 육으로도 부활시키실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는 것도  
놀랍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은 자를,  
아니, 그냥 죽은 자가 아닌,

무덤에서 썩어 냄새 나는 자를  
살리시는 것은 얼마나 훨씬 더 영광스럽지 않겠어요?

훨씬 더 영광스럽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는 병에 들었다가  
낫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보다 더 근본적인 해답을  
원하지 않으세요?

단지 병뿐만 아니라,  
육체적 죽음에 대한 해결을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죽음에 대한 해결을  
보여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  
지체하신 것 입니다.

그럼 7-16절을 함께 봅시다.  
이틀 뒤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입니다.

제가 7절부터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를 뒤입니다.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선생님)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고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열두 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대단하죠?

12절입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낮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사로의 죽음을  
표현하셨나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육체적으로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확실히 아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표현하셨죠?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누군가를

오후 낮잠에서 깨우는 것처럼  
예수님께는 죽은 자 가운데서

누군가를 실제 다시 살아나게 하실 수 있다고  
주장하십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집안에서 서성거리고 있으면,  
어떤 때는

제 아내가 소파에 자고 있습니다.

생각하시기에, 제 아내가  
소파에서 코골면서 자고 있는 광경이  
사랑스럽고 귀엽다 생각하실 겁니다.

제 아내가 소파 위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저는 ‘큰일났다. 아내가 낮잠을 자고 있어!’  
이렇게 놀라진 않습니다.

제 아내는 기분 좋게 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깨우는 방법은

아주 쉽죠. 그렇지만,

친절하고 부드러운 방법으로  
깨워야 합니다.

코알라도 매우 귀엽지만,  
잘 못 건드리면 무서울 수도 있거든요.

아내가 날카로워지는 것은 원하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제 아내를 깨우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가 제 아내를  
낮잠에서 깨우는 것처럼

쉽게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도착하셨을 때  
어떻게 하셨는지 알아보시다.

17절을 봅시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 지

이미 나홀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 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쭙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마르다가 실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주께서 여기 더 일찍 오셨더라면,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았을텐데,  
비록 실망은 하였지만,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기 바로 직전에  
도착하셔서, 응급조치를 하시거나

심폐소생술을 하실 수 있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나사로는 죽은 지 몇 일 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장례식 준비를  
도우실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도착하셔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23절을 함께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나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는 장래 희망,

미래에 있을 부활에 대해서 믿었습니다.

이는 그 시대에 많은 유대인들은 중  
하나님의 믿는 자들은

죽음에서 다시 살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마르다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언젠가는 마르다도

그 오빠를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믿으셨지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서는  
그 장래의 날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설명하십니다.  
장래의 날이 올 것을 말씀하시고,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도 말씀하십시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게 무슨 뜻일까요?

“부활과 생명”에 대해서  
알아야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나는 부활이요.'  
그리고 '나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십시오.

무슨 뜻 일까요?  
'나는 부활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이  
그 장래의 날에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게 하실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장래의 날에 그저 참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책임을 지실 것 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죽은 자를 다시  
육체적으로 살리실 것입니다.

최종적인 희망은 죽은 자가  
육체적으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천국을 어떻게 상상하시는 지  
모르겠지만, 천국은 지루하게 존재하는 곳이 아닙니다.

구름 위에 앉아서, 하프를 연주하고  
흥미진진한 곳 같은가요?

워. 하프를 몇 번 키고 나면……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최종적인 목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육체적으로 다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십시오.

예수님께서서는 '나는 부활이요.'라고  
말씀하십시오.

또, 예수님께서서는,  
'나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십시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예수님 없이 존재할 수 있지만,  
예수님 없이 살 수 없다고 말씀하십시오.

즉,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면서,  
숨쉬고, 춤추고,

보고, 듣고 할 수 있지만,  
살지는 않는다고 말씀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인격적으로 그분께 나아가  
그를 따르지 않고는 진정한 삶을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가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지난 주에 말씀 드린  
고래와 해변의 예와

비슷한 원리입니다.  
고래를 대양이 아닌 해변에서 발견하신다면,  
여러분은 놀라실 것입니다.

조금 숨을 멈추고,  
조금 놀라시겠죠.

그러나 고래가 살아있습니까?  
살아있지 않습니다.

고래는 헤엄칠 수 있는 환경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오직 자신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으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육체적으로 죽더라도  
장래의 날에 육체적으로 다시 살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인격적으로 나아온 자는  
영생의 삶을 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마르다에게  
놀라운 질문을 하십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마르다는 간단히, ‘네.’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모든 죽은 자를 육체적으로  
다시 사게 하실

약속된 유대인의 메시아에 대한  
마르다의 기대였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그 메시아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주장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굉장한 주장을 하지만,  
입증을 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지금 여러분께,

‘저는 이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프랭크 시나트라조차  
저를 따라오지 못합니다.

제가 최상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말씀 드린다면,

제 목소리를 들어보신 분들은  
‘제발 부르지 마라.’ 하시거나,

‘증명해 보세요’  
하실 겁니다.

어떻게 증명할 수 있죠?  
마이크를 들고,

제가 몇 분만 노래를 부르면,  
여러분의 귀청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의 노래를 들으시면,  
제가 음치라는 것을 바로 눈치채실 겁니다.

제가 엄청난 주장을 할 수 있지만,  
입증은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삶과 죽음의 권세가 있으시다고  
주장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입증하시는지  
28절을 봅시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뵈옵고

그 발 앞에 엎드리어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다음 절은?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 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서  
놀라운 일을 행한 것을 알았지만,

기억을 행하신 것을 알았지만,  
이번에는

나사로가 몇 일 동안 죽었기에,  
눈물을 흘리는 것밖에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봅시다.  
38절을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하시니

확신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홀이 되었으매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다시 말하자면, 시체에서 지독한 냄새가 나니,  
돌을 옮기지 말라고 부탁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싼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 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죽은 자가 수족을 베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싸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니.'

예수님께서 삶과 죽음에 대한 권세가  
있으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많은 삶의 부분에서  
참 의심이 많습니다.

참 쉽게 설득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삶의 어떠한 부분에서는

사람들은 아무런 증거가 없어도  
아무거나 다 믿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죽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장래의 일에 대해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다양한 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주장이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까?

아니면, 듣기 좋기에  
믿고 싶은 것은 아닌가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실제로 다시 살리셨습니다.

저는 어느 누구의 장례식에도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상상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제가 관에 다가가서

말하길, '제가 잠시 동안  
관을 열겠습니다.

그리고 시체한테 말을 걸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저는 어떠한 장례식에도  
참석할 수 없을 겁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이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음을

확신하셨습니다.

이것은 기이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서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약속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기록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믿으시겠어요?  
여러분은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

나아와 있는 그대로  
자신을 드리겠습니까?

왜냐하면, 만약 예수님께 자신을 드린다면,  
예수님께서서는 ‘나에게로 오면, 살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영생을 소유하게 되실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궁극적 목표는  
주님 안에서 육체적 부활과 더불어

고통과 고난이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생각들이 많으실 줄 압니다.  
각 조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화를 나눠보세요.

Identity – Who is God? Who are we?

© Lee McMunn, 2011

All rights reserved. Except as may be permitted by the Copyright Act, no part of this publication may be reproduced in any form or by any means without prior permission from the publisher.

Published by 10Publishing, a division of 10ofThose Limited.

All Korean scripture quotations are taken from the New Korean Revised Version. © Korean Bible Society.

10Publishing, a division of 10ofthose.com  
Unit 19 Common Bank Industrial Estate, Ackhurst Road, Chorley, PR7 1NH, England.  
Email: info@10ofthose.com  
Website: www.10ofthose.com